

기상사랑

2016. July

www.kma.go.kr Vol. 421

— 정책 클로즈업

날씨 빅데이터로 농작물 생산량
예측까지!

— 해외동향

세계은행,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경제적 영향

— 열린마당

호주, 사랑을 담다

하늘사랑

2016 July Vol.421

2016년 7월호(통권 421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6년 7월 11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현숙 편집기획 대변인실 최의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날씨 빅데이터로 농작물 생산량 예측까지! · 02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 04

해외동향

독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예측 모델 개발 외 · 06

KMA About

열린마당

기상1호, 다시는 겪지 못할 값진 경험! · 08
 더 큰 비상을 위한 특별한 경험 · 10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가다 · 12
 호주, 사랑을 담다 · 14
 뇌섹녀가 되기 위한 영어 저격 · 16
 떠오르는 소양강 · 18
 터널과 나의 기상청 · 20

KMA 날씨 +

날씨 + Book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곳,
 파리의 심리학 카페 · 22

날씨 + 건강 삼복더위와 냉방병 · 24

날씨 + 24월기 소서(小暑) · 25

날씨 + Story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남산 · 26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KMA Report

월간기상정보 · 28

포토 브리핑 · 30

독자 마당 · 32



7 July



09



11



26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날씨 빅데이터로 농작물 생산량 예측까지!



우리는 가끔 '금배추 · 금무 · 금양파... 밥상 물가 빨간불'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접하고 한숨을 짓곤 한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은 날씨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재배하는 채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날씨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날씨 빅데이터 농업과 손잡다

기상청은 2014년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등을 통해 날씨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 분야에서 기상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산지별 기상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고, 단위면적당 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농작물 주산지별 날씨를 제공하다

기상청은 전국 읍·면·동 단위의 동네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에서는 지리적 특징, 작물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가 각기 달라 농업 종사자들은 과학적 영농 구현이 어려웠고, 기상기후에 따라 농산물 가격변동 폭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기상기후에 민감한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 36종 429개 주산지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 날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산지별 기상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특히 양파, 마늘, 사과 등과 같이 기상에 큰 영향을 받는 10개 작물에 대해서는 생육단계별 주요 기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로써 농업 종사자들이 작물별, 주산지별로 기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 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날씨를 알면 수확하기 전에도 생산량 정보 제공

기상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채소인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건고추, 마늘 5대 작물을 대상으로 날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단수)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단위면적당 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한 자료를 통해 원하는 연도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고, 농작물 품목에 따라 지역별 생산량 정보와 생육 시기별 기상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요소별 관측자료 등을 입력하여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단위 시뮬레이션 정보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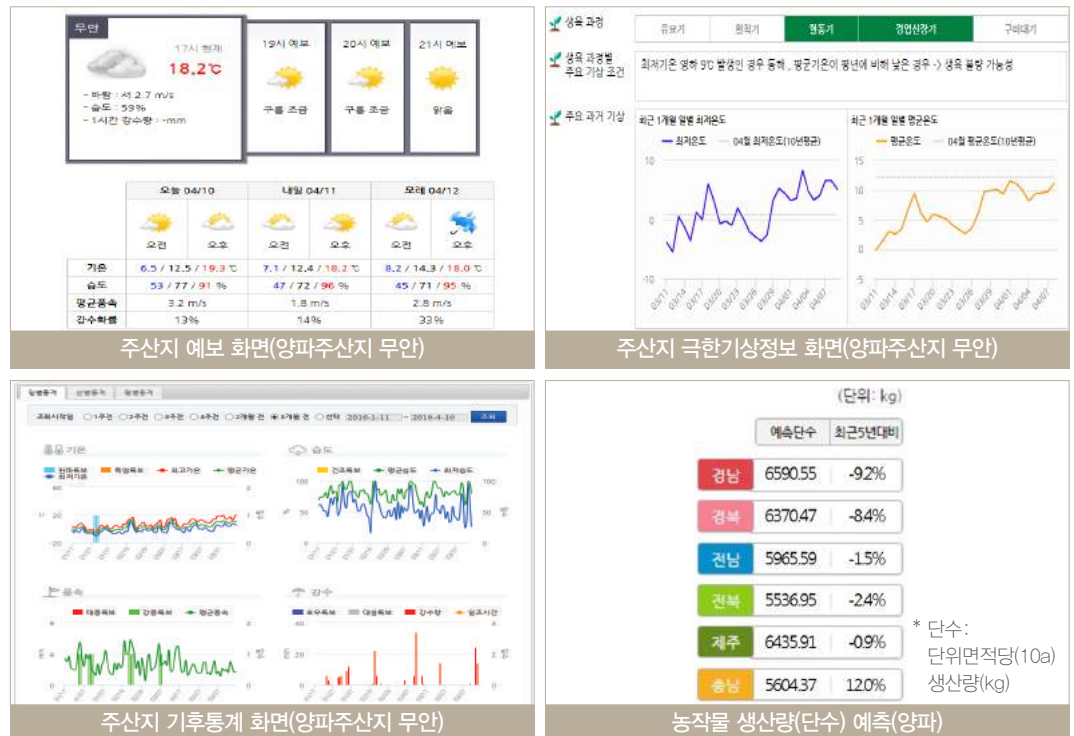
단수 예측 모형은 작물별로 수확 2~3개월 전부터 수확 완료 시점까지의 생산량을 예측하여 제공한다. 양파와 마늘의 경우에는 3~6월, 건고추는 6~10월, 가을배추와 가을무는 9~11월에 제공된다. 단수 예측 모형은 날씨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량 예측이 가능해지므로 농산물 관련 유관기관은 날씨로 인한 농작물의 가격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결정에 있어서 생산량 예측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날씨와 농업이 만나 우리 밥상을 함께 지킨다!

기상청은 단수 예측 모형을 통해 농작물 수급 예측 등 활용성을 높이고자 지난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상청은 농작물 생산량 예측 모형과 주산지별 기상정보를 농산물 수급 관련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단수 예측 모형과 관련한 빅데이터 기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예측서비스와 주산지 기상정보 등 기상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관측 고도화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상청-농림축산식품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인 융합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부3.0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상기후 농업융합서비스는 기존 날씨예보가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과학적인 서비스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앞으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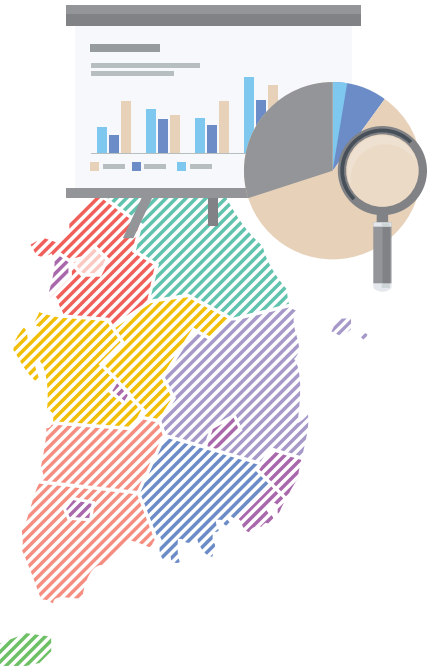
농업 분야 기상융합서비스 예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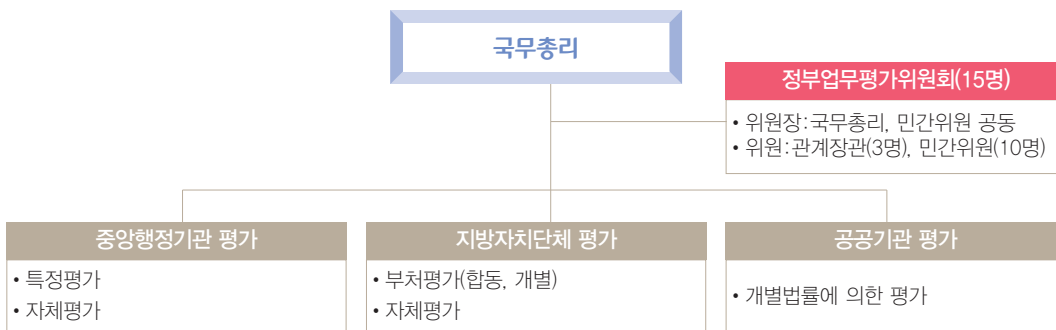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매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이듬해 초에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정부업무평가의 추진방향은 국정과제와 핵심개혁과제 등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강화 등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다.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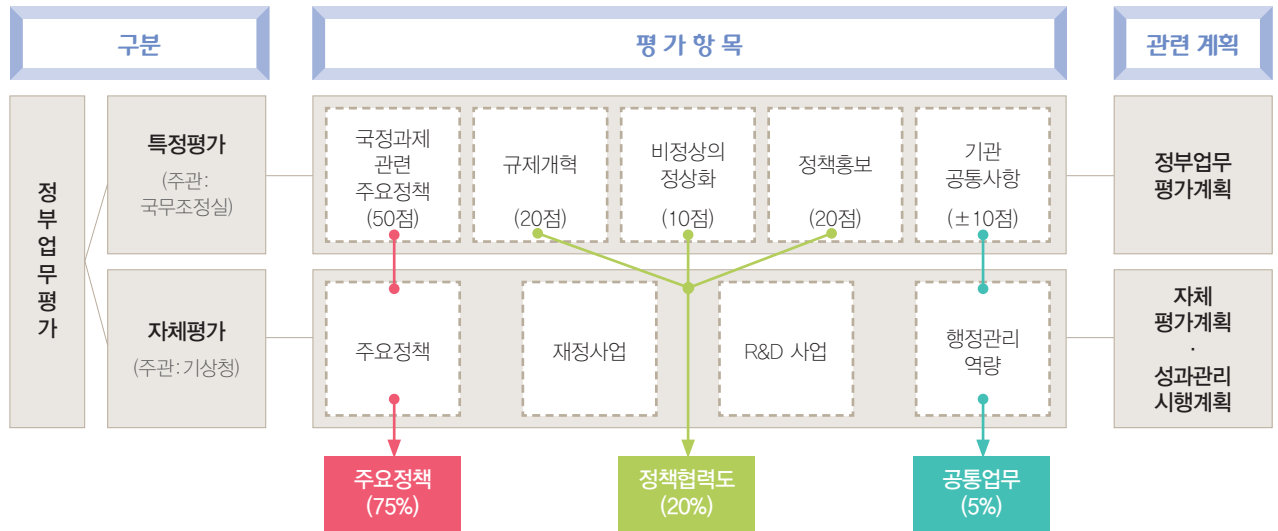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법에 따른 평가 종류는 특정평가, 자체평가 두 가지로 나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 사업, 행정관리 역량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자체평가에서 각 부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 일정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추진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총괄기관(국무조정실)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시행하게 되며, 점검방법은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등이다.

기상청은 성과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4년도 ‘미흡’에서 2015년도 ‘우수’기관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무조정실 주관 ‘2016년 범부처 성과관리 워크숍’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자체평가)와 연계하여 국정기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관리제도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기상청은 성과관리 추진일정을 특정평가 일정에 맞추어 자체평가 일정을 최적화하였다. 특히, 하반기 자체 평가를 조기 시행(다음 해 1월 → 11월)하고, 분기별 청장 주재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의 연계성 강화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본방향과 취지 등에 대한 정보를 영상회의,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 내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불신과 오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결과가 2015년에는 반등하여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이 향상되었다. 2016년도에는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안정화 노력을 통해 전 조직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상청 전략목표에 집중된 노력을 통해 '기관의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한 최적의 노력'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탁월한 조직 성과중심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



성과관리 순회교육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 운영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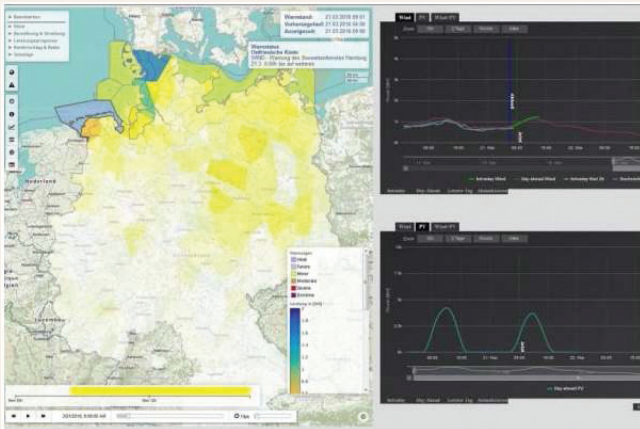
GERMANY

독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예측 모델 개발

독일의 프라운호퍼 풍력에너지연구소(WES)와 독일기상청(NMS)은 향상된 바람·태양발전량 예보 수학모델 개발(EWeLiNE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WeLiNE 프로젝트는 독일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1~24시간 전에 예측한다. 현재 'Energy Forecaster' 플랫폼을 사용하여 테스트 중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예측은 발전소의 안정적 유지,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설비(원자력, 가스, 석탄)에서 만들어진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력 거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http://www.upi.com>



EnergyForecaster 플랫폼 화면 예시

AMERICA

미국, 온실가스 배출장소 탐지

미국항공 우주국(NASA), 캐나다 기후대책 환경부(ECCC) 공동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공위성 영상으로 이산화황 배출장소 탐지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구 전체에서 독성이 있는 이산화황의 약 12%를 배출하고 있는 39개의 보고되지 않은 장소를 발견했다.

또한, 연구팀은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들과 용광로, 특히 중동 지역의 석유·가스 공정시설 다수 포함하여 비밀리에 이산화황을 배출하고 있는 기관들 적발했다. 앞으로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오염원도 탐지가 가능할 것이며, 기초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래 온실가스 배출 대책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phy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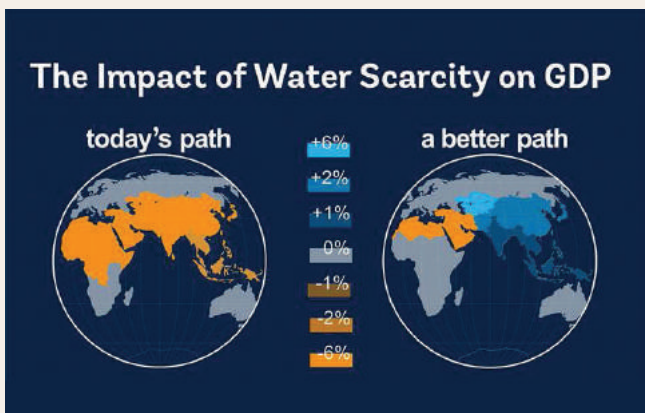


세계은행,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경제적 영향

세계은행은 앞으로 중앙아프리카, 동아시아처럼 현재 쉽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과, 중앙아시아처럼 이미 식수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 모두 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 부족 문제로 인한 식량가격 급등은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 지역에 6%까지 GDP 손실(농업, 보건 분야 등) 초래할 것이라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물 관련 문제를 완화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물 사용에 관한 계획과 보상으로 물 사용 목적에 맞는 가격을 결정하고, 둘째, 댐, 수자원 재활용, 담수화 등 물 공급과 가용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보험,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 건설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http://www.kpbs.org>



2050년 물부족으로 인한 GDP 영향(좌), 더 나은 수자원 관리와 정책결정으로 상쇄된 피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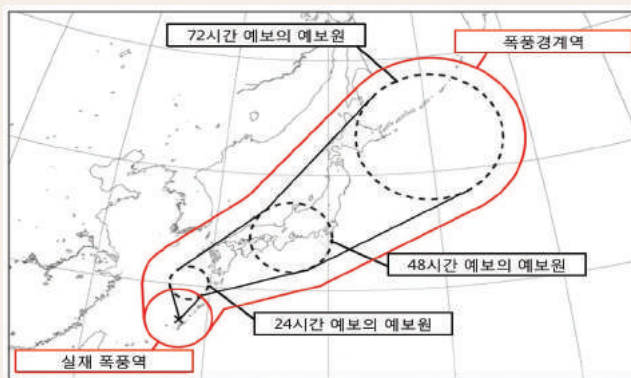
일본, 태풍진로예보 개선

최근 일본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개선과 히마와리 8호 위성 등 새로운 관측데이터의 활용으로 태풍진로예보의 정확도 향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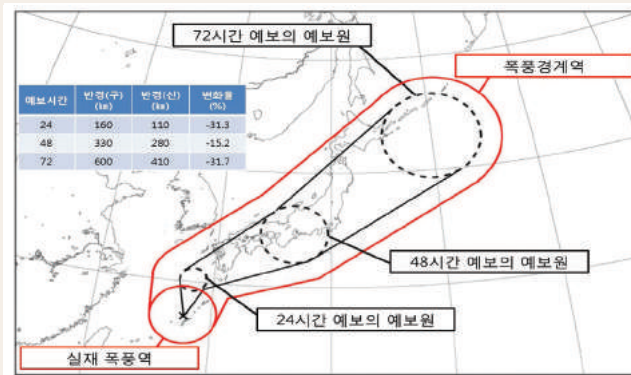
태풍진로예보에서 70%의 확률로 태풍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보원(豫報円)'이라고 하며 태풍의 중심이 예보원 내로 진행할 때 풍속 20%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범위를 '폭풍경계역'으로 표시한다. 이후 발생할 태풍에 대해서는 개선된 예보원과 폭풍경계역으로 진로예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년(2011~2015년)간의 태풍진로예보를 검증한 결과, 예보원의 반경을 약 20~40%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폭풍경계역에 대해서도 더욱 정확한 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jma.go.jp>



개선 전 태풍진로예보원



개선 후 태풍진로예보원

기상1호, 다시는 겪지 못할 값진 경험



김다인
국립기상과학원

‘바다 위의 떠다니는 기상청’이라 불리는 기상관측선 ‘기상1호’에 온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다. 그동안 평생 가보지 못할 바다와 섬들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풍부한 기상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이처럼 값진 경험을 얻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돌이켜보면 멀게만 느껴지는 2015년 초, 나는 발령 통지를 받고 기상1호에 첫발을 내디뎠다.

기상1호와 뱃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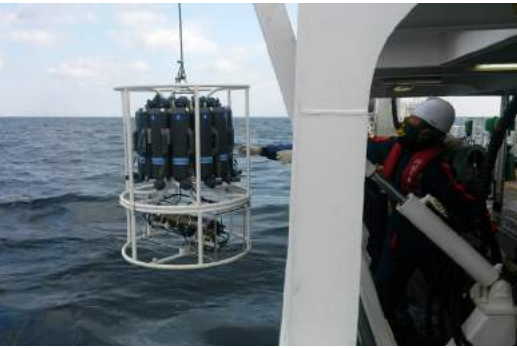
“어린 시절 이후 배를 타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은 내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줄곧 내륙 지방에서 살아왔고, 어릴 때 남도의 보길도라는 섬으로 가족여행 갔을 때를 마지막으로 배를 타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수영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뱃멀미였다. 처음 부산에 정박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작은 지진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배가 줄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당시 느꼈던 흔들림은 ‘어린이 수준’에 불과했다. 출항 날짜가 잡히고 바다로 떠나는 순간 비로소 해상에서의 ‘진정한 흔들림’을 체험하게 되었다.

위험기상을 만나다

좀 더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면, 운항 중 위험기상을 만날 때 배가 기울어져 각종 물건들이 쓰러지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이제는 적응하여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에는 놀라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 넘어진 책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내게 선박직원 한 분이, “어차피 세워놔도 또다시 넘어질 텐데 세우지 말고 그냥 넘어트려 놔요.”라는 말을 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웃음으로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이었다. 한편으로, ‘당분간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활을 겪다 보니 이처럼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선박직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게는 수십 년을 근무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때로는 일이 잦고 고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 있고 노련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감탄하곤 한다.

기상1호로 자부심을 느끼다

나는 기상1호에 근무하면서 1일 2회 고층비양의 기본 관측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



다. 주로 해상에서의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의 관측 조사 업무로써, 여름철 강수량 관측, 태풍 대비 표류부이 관측, 해양 수온 및 염분 관측, 평창올림픽 대비 동해상 동풍류 관측, 봄철 서해상 에어로졸 관측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 나열해 보니 양이 상당한데 사실 이 모든 일을 기상1호 단독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업무는 타부서 및 타기관 업무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비록 이처럼 기상1호에서 많은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양 연구 조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해상 관측자료 수집'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다.

인상깊었던 기상1호

기상1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작년 여름 운항 중 뇌전현상을 보았을 때다. 당시 대기불안정으로 군데군데 뇌운이 생겼는데 마침 기상1호 바로 위 상공에서 뇌운이 크게 발달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뇌운의 명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상관측 사각지대인 해상에서 이러한 중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한편, 당시 발생한 낙뢰를 카메라에 담았었는데 카메라 성능 및 관측자의 재량 부족으로 좀 더 멋지게 촬영할 수 없었던 점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참으로 많은 추억이 함께한 기상1호에서의 생활이었다. 육상에서 겪지 못할 경험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경험은 자신감으로, 새롭고 유익한 경험은 노하우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이를 자양분으로 앞으로 더욱 멋진 기상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해 본다.☺



더 큰 비상을 위한 특별한 경험

ICAO 제5차 기상요건 실무그룹(MET/R W/G) 회의를 다녀와서

항공기상청에서 내가 담당하게 된 업무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종합통제센터(ATFMC)에서 구축되는 ATFMS(Air Traffic Flow Management System)에 기상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ATFM(항공교통흐름 관리) 지원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해외 사례들도 참고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고전하고 있던 내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ICAO 아태지역 제5차 기상요건 실무그룹(MET/R W/G) 회의

ICAO 아태지역 제5차 기상요건 실무그룹(MET/R W/G)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나는 지금껏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왔던 시스템과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었다. 짧은 영어 실력에 의제를 발표해야 하니 긴장도 많이 되지만 첫 국외 출장이라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이 컸다.

ICAO 아태지역 기상요건 실무그룹(MET/R W/G)은 올해 새로 임명된 조직이다. 작년까지 T/F로 운영되다가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회의(APANPIRG, 26)에서 조직 설립이 결정되었다. 조직의 설립 목적은 항공교통관리 운영에 안전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개선을 위해 ATM(Air Traffic Management)의 요구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2개국에서 30명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나라의 발표를 벤치마킹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기상정보, 기상과 관제 서비스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였다. 한국, 홍콩, 일본, 호주에서 총 10개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호주에서는 ATFM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듯 6개의 주제를 발표했다.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호주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 서비스, 자동으로 뇌우 SIGMET 발표를 지원하는 가이드스,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산출물, ATFM 지원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절차, 통합 민-군 공역관리시스템에 관한 소개를 했다. 홍콩에서는 비행기 항로에 따라 SIGMET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WMO 항공연구시범 프로젝트 추진 사항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일본에서는 도쿄,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접근 관제 주변의 항공교통 흐름을 위해 기상-관제가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소개를 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위험 기상 현상과 수용량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기상 서비스,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한 브리핑 서비스, 기상정보와 공역정보 중첩기능을 통한 협력적 의사결정(CDM,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강경아
항공기상청

과 ATFM 지원 콘텐츠 등 향후 ATFM에 지원할 기상서비스를 소개했다.

긴장 넘치는 발표 순간

발표순서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다. 눈앞은 캄캄하고 머리는 하얘졌다. 좋지 않은 발음으로 더듬거리며 발표를 끝냈다. 그 짧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발표는 무사히 끝을 냈는데, 질문이 문제다. 함께 간 동료들이 열심히 통역해 주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영어로 설명하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할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서비스 개발 방향이 좋다고 앞으로 계속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참석자들의 말에 용기가 난다.

한 줄기 빛을 찾다

많은 회원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ATM/ATFM 지원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희미하던 밤길. 저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다. 앞으로 내가, 우리 팀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바쁘고 들뜨다. 한 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생긴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기상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귀국한 지 두어 달이 지났다. 지난 여행을 되돌아본다. 여행에서 얻은 제일 큰 수확은, 외국의 새로운 기술도, 그들의 정보가 아니라 좋은 동반자를 만난 일인 것 같다.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과 함께 새로운 항공 기상서비스 개발을 위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보려다. 더 활기차게 날 것 같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 📧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가다



날씨가 화창하다 못해 눈이 부셨다. 입안에는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 가득했다. 가족들과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바라산 자연휴양림' 발견했다. 특히, 서울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숲 속 휴식공간이라는 말에 가족들과 만장일치로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우리 가족은 수박주스를 한입 가득 물고 부푼 기대감을 안고 휴양림을 향해 출발했다.



바라산 속에서 우리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다양한 종류의 객실과 야영데크를 갖추었다. 만약 실내를 선호한다면 객실을 예약하고, 캠핑을 즐긴다면 50개소에 이르는 야영데크에 텐트를 치고 숲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된다. 한 달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하고 추첨을 통해 결과가 결정된다. 워낙 인기가 좋아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우리는 운 좋게 예약 취소한 객실과 데크를 발견하여 두 군데 모두 예약할 수 있었다.

우리가 묵을 곳은 백운산동 2층의 5인용 객실이다. 이곳은 방 한구석에 계단이 자리 잡은 복층이다. 아이들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재미난 지 다람쥐처럼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숙소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냉장고, 밥솥 같은 취사도구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 1층 객실은 베란다 앞에, 2층 객실은 건물 옆쪽에 방 별로 지정된 벤치가 있어 야외에서 식사하고 쉴 수 있다.

피톤치드 듬뿍 마시며 힐링 또 힐링

미세먼지 걱정을 벗어나 피톤치드 듬뿍 마시러 왔으면 이제 가야 할 곳은 숲 속 야영데크. 야영장은 A동, B동, C동으로 나뉜다. 우리는 예약한 B동으로 향했다. 표지판을 따라 숲 속의 나무계단을 5분



박민경
관측기반국



남짓 걸어가니 벌써 텐트를 치고 데크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야영장 옆쪽으로 개수대가 있어 필요한 물을 쓸 수 있고, 데크마다 철재 좌식 식탁이 준비되어 있어 식사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이다. 오늘의 저녁은 집에서 먹으면 꿀맛, 밖에서 먹으면 더 꿀맛인 돼지 삼겹살 구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잘 익은 김치에 싸서 입안에 넣어 씹을 때의 그 맛! 지글지글 소리마저 귀를 즐겁게 한다. 쌓여있던 고기가 금세 줄어든다. 아이들은 고기로 배를 채우고는 처음 만난 언니오빠들과 신나게 뛰어노느라 여념이 없다.

캠핑장 램프가 하나, 둘 켜지면

해가 지고 캠핑장 램프가 하나, 둘 켜진다. 주홍빛 백열등이 마치 반딧불이 같다. 조용한 가운데 나의 새로운 생활을 떠올려 본다. 기상청으로의 전입, 새로운 동료들, 처음 접하는 업무들. 나는 기상청이 실천적인 연구자들의 모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기상청은 수평적인 의견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세미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질문, 그리고 코멘트를 통하여 직원들은 업무

에 대한 지식의 장을 넓힌다. 발표자는 다른 직원들에 의한 피드백을 받는다. 더불어 칸막이로 막혀있는 부서 간의 이해도를 높여 협업을 이끌어낸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 자신의 그릇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린다.

바라산에게 미소로 건네는 작별인사

다음 날 아침, 도시에서 듣기 힘든 새들의 지저귀음이 경쾌하게 단잠을 깨웠다. '그래, 우리가 지금 숲 속에 있지.' 하루밖에 묵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떡국을 끓여 먹었다. 배를 채우고 어제 가보지 못한 숲 속 산책길을 따라 걸었다. 하얀 나비, 까만 개미, 투명한 거미줄. 흥내음을 맡으며 초록색이 뿌려진 길을 한적하게 걸어가니 작은 숲 속 친구들이 우리를 반기는 듯하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을 기약하며 우리는 바라산에 안녕을 고했다. 머릿속이 맑고 고요하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생각을 정리하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다. 내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미소 짓고 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나 또한 바라산에게 미소로 작별인사를 건넸다.☞



호주, 사랑을 담다

여행을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여행을 모르는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졌다. 제대로 된 여행을 거의 가본 적 없는 신랑에게 신혼여행의 의미는 남달랐다. 그걸 알기에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나는 결혼식 몇 개월 전부터 신혼여행 준비에 가장 열을 올렸다. 처음으로 둘이 함께 보내는 긴 휴가에 모든 것을 해보고 싶었고 한참 동안 어울리는 여행지를 찾아 헤맸다. 자연 속에서 휴양과 관광을 둘 다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 '호주'가 떠올랐고 그렇게 우리는 그곳으로 떠났다.



이명숙
대구기상지청

호주 여행의 시작

길고 긴 약 10시간의 비행 끝에, 따뜻한 봄에서 벗어나 시원한 가을이 내려앉은 시드니에 도착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라 약간 두꺼운 옷을 준비하였지만,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로 낮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반팔을 입고 다녔다. 그리고 맑은 날이 연중 340일이 넘을 정도로 일 년 내내 화창해 여행하기엔 제격이었다. 호주를 계란프라이로 비유하자면, 가운데 노른자 부분에는 사막이, 흰자에는 풍부한 자원이 위치하고, 가장자리 부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다. 또한, 도시 간 이동시간이 무척이나 길어서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블루마운틴과 작은 마을

우리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블루마운틴이었다. 이곳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산이 파랗게 보인다고 한다. 재미슨 밸리를 가로지르는 스카이웨이를 탑승하여 산 전체를 바라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파랗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본 블루마운틴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곳의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거대한 협곡, 울창한 숲, 폭포를 구경할 수 있어 산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천국 같은 곳이었다. 우리



나라 나무들이 작아서 귀여워 보일 정도로 이곳은 어딜 가나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했고 특이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를 더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 산을 내려오니 색감이 예쁜 건물들이 가득한 동네가 눈에 들어왔다. 고요하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골목길을 따라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곳 사람들의 일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의 행복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골드코스트

오페라 바에서 바라본 야경처럼 화려한 도시 시드니를 떠나 다채로운 모험의 휴양도시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골드코스트를 한눈에 감상하기 위해 헬기투어를 예약하고, 해지기 전에 서둘러 트램을 타고 시내로 나섰다. 헬기투어는 6~7명 정도 함께 탑승하는 데 운 좋게도 조종석 옆 두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앉자마자 열린 핸드폰을 손으로 고정하여 동영상촬영을 눌러놓고 해변을 따라 반짝이는 고층빌딩이 늘어난 골드코스트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다. 탑승 중에 대화를 못 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손발이 척척 잘 맞아 깨끗한 영상을 촬영한 게 희한해서 서로 한참을 웃었다. 10분 정도의 투어를 끝내고 시내를 거닐다 맘에 드는 옷도 사고, 잘 익은 만다린 한 봉지를 가득 사서 해변가에 앉았다. 보드 타는 아이들, 목걸이 파는 노점상 아저씨들, 즐겁게 저녁 먹는 가족들, 해변가를 걷는 연인들, 길거리 공연하는 밴드들 사이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몇 시간째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우리도 있었다. 그때 느꼈던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잊지 못해 결혼 10주년에 다시 이곳에 오길 약속하였다.

호주여행의 마지막 날

늘 먹던 아침처럼 베이컨과 구운 토마토에 여러 가지 맛있는 시리얼을 곁들여 맛있게 먹고서 짐을 싣고 공항으로 향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 느꼈던 새벽의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고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담아 비행기에 올랐다. 이렇게 우리는 서른 살 첫 여행을 끝내고 이제 결혼이라는 달콤한 여행을 시작한다. ■



뇌섹녀가 되기 위한 영어 저격

생각해보면 대학원을 진학하기 이전까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 해외여행을 갈 때도 기초적인 단어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이 대부분 알아듣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았고, 서류상으로 영어 점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점수에 관한 공부만을 바짝 하여 점수만을 올리는, '나를 위한' 영어가 아닌 '점수를 위한' 영어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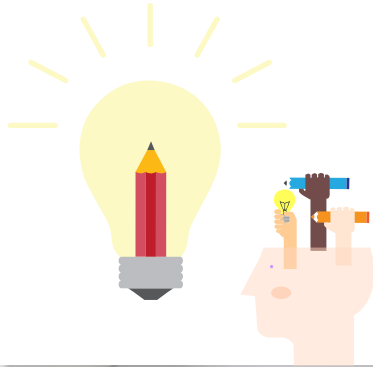
박섬
제주지방기상청



새로운 시작, 영어 독서 토론 스터디!

제주지방기상청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어에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영어 독서 토론 스터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다. 나의 영어 실력이 드러날까 조금은 망설여지기도 했으나 그동안 부족했던 영어실력을 향상할 기회라 생각되었다. 또한, 점심시간이라도 짬을 내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생산적인 일임을 알기에 선뜻 가입하게 되었다. 최종적인 가입자 수는 청장님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며, 매주 화요일 점심식사 후 1시간 정도 영어 토론 시간을 갖게 되었다.

6월 둘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 이때 어떤 책으로 스터디를 운영할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가졌다. 'Da Vinci Code(다빈치 코드)', 'The Alchemist(연금술사)', 'Haw's Moving Castle(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비교적 쉬운 영문 소설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에서 어휘나 문장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쉽게 읽히면서도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한 파울로 코엘료의 'The Alchemist'가 첫 스터디 도서로 선정되었다. 연금술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소설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읽어보고 싶었으며 중요한 어휘나 표현이 많다고 들었기에 책 선정에 대해 무척 마음에 들었다.



6월 셋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 본격적으로 독서 토론이 시작되었다. 미리 전주에 읽을 분량이 공지되므로 나는 그 분량에 대한 단어 정리나 구문해석을 준비했다. '스터디'라는 명목으로 모임이 형성되었기에 딱딱하게 운영될 것이라 짐작하였으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책 내용이나 구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책을 읽으면서 어색한 문장이나 단어는 없었는지부터 시작하여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문이나 표현을 공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왜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학적인 부분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책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을 서로 공유하여 나눈다는 것이다. 나는 말 그대로 '영어 스터디'를 하기 위한 관점으로 소설을 읽고 해석하였지만, 소설에 대한 사소한 배경들을 들음으로써 더욱 깊고 흥미 있는 시선으로 소설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딱딱한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스터디 내용 또한 알차고, 스터디원들과 마치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에필로그

영어 독서 토론 스터디에 참여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스터디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걱정이 되었다. 혹시나 혼자 영어를 못해서 주눅이 들지는 않을까, 혼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스터디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등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스터디에 참여하고 나니 영어 실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 한 소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었으며, 같은 소설을 읽었지만 서로 중요한 구문 혹은 이상한 구문에 대해 공유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혼자 읽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문장을 누군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면, 또 다른 시선으로 그 문장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영어 공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숙제라고만 여겨졌던 영어가 다 같이하는 시간만큼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였다. 앞으로도 활발한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 배우게 될 영어소설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어떨지 매우 기대된다. 📖



떠오르는 소양강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앞의 노래는 ‘소양강 처녀’의 가사이다. 가사에 나오는 춘천의 소양강은 언제나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같은 곳이다. 춘천역에서 11번 버스를 타면 버스는 소양강 처녀상을 지나고, 춘천기상대도 지나고, 굽이굽이 산을 올라 소양강댐 정상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리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넓은 호수와 탁 트인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한쪽에는 댐이 만든 저수지를, 한쪽에는 댐에서 나온 물이 흘러 강을 이루게 되는 계곡을 볼 수 있는데 두 곳 다 빼어난 절경을 보여줘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르게 한다.

소양강댐을 소개합니다

소양강댐의 높이는 123m, 제방 길이는 530m, 총 저수량은 29억 톤으로 진흙과 돌로 만들어진 다목적댐이다. 1967년 4월에 착공하여 1973년 10월에 완공했는데, 그 당시 3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 만들어졌다. 많은 돈이 투자된 만큼 소양강댐은 전기와 생활·공업용수를 제공하며 서울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댐이다.

댐길은 그늘 하나 없는 길이지만 주변 경관이 빼어나, 경치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댐 반대편에 다다른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른 길을 걷게 되는데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팔각정에 도착한다. 소양강댐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 앉으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올라왔을 때의 피로를 풀어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는 매년 댐 아래에 있는 본부에서부터 댐 정상까지 오르는 ‘소양강댐 용너미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또 다른 즐길 거리가 있다.

유람선과 청평사

저수지를 바라보면 배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유람선이다. 약 50분 운행하는 유람선은 소양강댐 주위를 도는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타는 유람선도 제법 재미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유람선 외에 이동수단으로 운영되는 배가 또 있다. 청평사를 가는 유람선이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10분 정도 강 안쪽으로 들어가면 청평사 가는 길이 나온다. 청평사 가는 길에는 오봉산에서 내



최정목
춘천기상대

려운 등산객들과 관광객을 위해 먹자골목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강원도 토속음식인 메밀전병, 막국수 등을 맛볼 수 있다. 먹자골목을 지나면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설을 마주한다. 원나라 공주가 상사뱀이 붙어 고생하다가 이곳에 와서 기도 한 후 나은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순제가 만들었다는 '공주탑'을 볼 수 있다. 또한, 차가운 계곡물이 흘러 잠시 발을 담그는 여유를 즐기며 30분 정도 걸으면 웅장한 오봉산 아래에 근엄함을 보이는 청평사에 도착한다. 절은 아담하지만, 절 안에 있는 전망대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도 굉장히 멋지다.

닭갈비 골목과 콧구멍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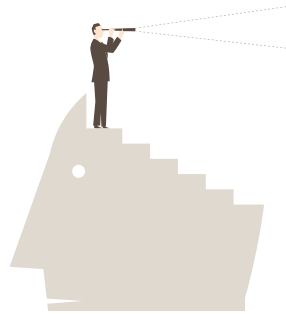
'춘천' 하면 누구나 닭갈비를 떠올릴 것이다. 철판 위에 지글지글 익혀진 닭갈비도 맛있지만, 춘천에는 또 다른 닭갈비, 숯불 닭갈비가 존재한다. 소양강댐 구경 후 산 밑으로 내려오면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항상 풍기는 닭갈비 골목이 나온다. 이곳은 숯불 닭갈비가 유명하며, 각양각색의 닭갈비집이 있어 취향대로 원하는 곳에 들어가 닭갈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카페도 많이 생겼다. 특히 소양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서, 좋은 경치를 보며 마시는 커피의 맛도 일품이다.

한편, 이곳에는 철거 위기에 처했던 콧구멍다리가 있다. 콧구멍다리는 '세월교'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다리가 마치 콧구멍처럼 송송 뚫려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생긴 것도 독특하지만, 다리 바로 아래에 물이 흘러, 비가 내릴 때는 잠수교가 되고, 한여름에는 춘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쉼터가 되어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로 철거가 무산됐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명소이다. 소양강댐에는 소개한 곳 외에 더 많은 관광명소가 있다. 한겨울 소양강에 펼쳐지는 소양강 상고대, 막국수 체험박물관, 소양강과 의암호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소양강 처녀상, 그리고 곧 개장하는 소양강 스카이 워크까지! 춘천시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소양강. 올여름 그 시원함을 느끼러 다시 찾아가야겠다. ☺



터널과 나의 기상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책이 있다. 바로 이건희 회장의 『좀 생각하며 세상을 보자』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을 때는 매우 낱아 먼지가 날릴 정도였고, 빌린 사람들의 손때도 많이 묻어 여러 가지 색깔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윤기한
수도권기상청

중고서적과 기억에 남는 문장들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해보니 새 책은 없었고, 중고서적만 5권 정도가 있었다. 가격은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었다. 이 책이 1997년에 6,500원에 출간되었으니,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을 볼 때 그때 그 시절의 가격에서 지금 오른 만큼의 시세 비율을 따라왔다. 중고서적이 원래 책 가격보다 오른 것은 처음 본 것이다.

어찌 되었건 내가 그 책을 찾은 이유는 책 내용에 '업'이라고 정의한 내용 때문이었다. 특히 "백화점은 부동산업이다." 문장이 뇌리에 박혔다. 즉, 자리 목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사업은 협력 사업이다." 말도 있었다. 반도체 산업은 불량품에 매우 민감한데 생산부서끼리 서로 협력을 잘해야 불량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이라는 단어의 핵심

‘업’이라는 단어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흔히 백화점하면 서비스, 명품, 고객, 이익 등을 생각하며 ‘고객서비스로 명품을 팔아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개별적인 것을 모아놓으면 이상해지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나 비전이라는 문장이 나타난다. 그런데 ‘백화점은 부동산업이다.’ 라는 말에는 명확하면서 그만 그만한 크기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색다른 정의였다. 그리고 핵심을 길어 올린 기분이었다.

그럼 내가 다니는 기상청의 업은 무엇일까? 기상청의 업을 내가 거창하게 할 것 없이 나에게 기상청의 업은 무엇일까? 기상청에 대한 나의 핵심은 무엇일까? 내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기상청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 많았다. 예보 정확도, 재해방지, 기후서비스, 소통, 동료 등 이렇게 단어들 외에, 나에게 확 다가오는 기상청에 대한 정의인, ‘나의 업은 무엇일까?’로 고민했다.

‘터널’

매연이 가득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터널도 있지만, 강원도 대관령 근처 백두대간 양쪽으로 시원하게 뚫린 터널이 있다. 나에게 기상청은 그 터널로 정의되었다. 입구로 기상청에 들어오고 지금은 중간을 더 지난 시점에 있고,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출구로 나가야 하는 터널이 나의 기상청에 대한 업으로 정의했었다.

나는 매끈하게 잘 관리된 그 터널을 이용하는 영동고속도로의 차 운전자이거나 또는 고속버스 속에서 탄 승객이 될까? 아니면 그 터널을 통해 강릉으로 넘어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관리자가 될까?

나는 터널 관리자가 되기로 했다. 비록 잘 눈에 띄지 않고 아무리 지나다녀도 관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가 볼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관리하에 전등은 항상 검은 먼지 없는 상태를 유지했고, 도로는 매끈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다. 터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기상청을 터널처럼 살피면서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용자처럼 지나가면 그것으로 터널의 역할과 나의 역할은 다하는 것일 것이다. 기상청을 터널로, 업으로 정하고, 어느 정도 기상청에 대한 나의 의미가 손에 조금 잡히는 듯했고 생활에 기준이 되었다.

아직은 내 인생의 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만,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내 인생의 가격표만은 읽었던 책값만큼 올랐으면 한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곳, 파리의 심리학 카페

저자 모드 르안 | 김미정 옮김 | 캘리온

『파리의 심리학 카페』는 실제로 파리에 있는 심리학 카페에서 지난 18년간 이루어진 상담을 토대로 작성된 책이다. 이 책은 누구나 겪을 법한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해 따뜻하게 때로는 냉철한 심리학적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상청 독서동아리 '글동'의 추천 도서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읽는 내내 내 마음을 읽어주는 듯해서 크게 공감되기도 하였다. 특히, '혼자 있을 때조차 마음껏 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라는 부분에서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이 책의 내용을 빌려 편지를 쓰며 위로하기도 했다.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읽으며 가장 공감되었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한다.

“

세월에 따라 변하는 우정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오래도록 친구를 곁에 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청소년기의 단짝처럼 함께하려고 한다면 자꾸만 변해 가는 상대의 행동에 상처받기 십상이다.

”

친한 친구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더는 단짝으로 느껴지지 않아 낙심하곤 했다. 예전만큼 애뜻하지도 않고 만나서도 내가 반가워하는 만큼 반가워해 주지 않는 친구의 모습에 종종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친구에게 실망하는 날들이 늘어가던 찰나에 『파리의 심리학 카페』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한번 단짝이었던 친구는 영원히 내 단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다치게 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우정의 피라미드 만들어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두고 첫 번째 칸에는 가족들, 연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소수의 친밀한 친구들로 채우고 두 번째 칸에는 그보다 덜 친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친구들로 채워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래 칸들도 채워나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따라 내가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현재 내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쏟지 않게 된다. 세월에 따라 가장 친한 친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



김세미
수도권기상청



좋은 선택이란 완벽한 선택이 아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리는 결정이다.
 ‘이 정도면 됐다’는 기준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고민을 멈추고, 그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택은 선택의 순간뿐 아니라 선택 후의 과정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달라짐을 잊지 마라.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올해 초 나에게 증대하게 선택할 일이 있었다.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라떼나 아메리카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쳤다.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련이 남을까봐, 선택한 것에 대해 나중에 후회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이다. 잠깐 하늘에 올라가서 신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서 책이 힌트를 주었다.

욕심을 버리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준만 정해두고 선택했다. 결정이 끝났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선택한 것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면 어찌지?’ 하는 염려 대신, 내 선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커졌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나에게는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일은 낭비같이 느껴져서 늘 바쁘게 지낸다. 그런데 책에서 “무언가로 꼭 찬 삶이 꼭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마음이 공허했던 이유는 내 마음을 세심히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하는 솔리튜드(solitude)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보다 창조적인 상태로 도약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홀로 있는 외로움도 나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초조함을 버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려야겠다.

『파리의 심리학 카페』는 공감을 끌어내는 책,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책, 밑줄 치며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



조금의 쉴 틈도 없이 너무 많은 만남들과 할 일들을 이어 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삼복더위와 냉방병

하지 이후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며, 이 셋을 삼복으로 부르고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삼복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체외로 빠져나가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중서(中暑)증이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찬 음식과 냉방시설을 지나치게 이용할 경우 중냉(中冷)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냉방병(冷房病)이라 한다.



김성준 원장
김한의원

중서증, 더위를 먹다

중서(中暑)는 여름철 더위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증으로 미식거리고 소화력이 저하되거나 설사, 복통을 하며, 두통, 관절의 통증을 유발한다. 쉽게 더위를 먹었다고도 표현하며, 이를 한의학에서는 서독(暑毒)이라고 한다. 서독에는 흰공을 갈아서 콩국수를 먹거나 미숫가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서독을 해독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간혹 증상이 심해 까무러치거나 팔다리가 오그라들 경우 환자를 빨리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옷과 벨트를 느슨하게 푸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냉증, 냉방병 예방법

중냉(中冷) 또는 냉방병의 경우에는 실내·외의 온도 차가 5도 이상이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냉방이 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에어컨을 오래 사용할 경우 땀구멍이 닫히고 땀과 함께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로 배설되지 못해 근육통·두통·콧물·재채기를 하며 심지어 목이 아파지거나 가래가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뒷목이 뻐뻐해지기도 한다. 만약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비염도 같이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 경우에는 땀을 적당히 흘려서 체온의 유지를 돕고,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다. 아랫배가 차가울 경우, 비록 여름이지만 아랫배에 핫팩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땀을 잘 흘릴 수 있도록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름철 기력에 좋은 음식

더운 여름철 기력이 약해지면 먹는 대표적 음식으로 삼계탕이 있다. 특히, 삼계탕은 소음인한테 좋은데 닭고기, 인삼, 황기, 찹쌀 모두 체질적으로 잘 맞다. 평소 배가 차가워지기 쉬운 태음인의 경우에는 찬 음식을 즐겨먹다가 탈이 나기 쉬운데 이때에는 따뜻한 매실차가 좋다. 매실차는 여름철에 소화장애나 식중독을 치료할 때 좋은데, 이는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어서 폐가 약해서 생긴 오랜 기침이나 구토와 복통이 있는 증상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여름에 위산부족으로 인한 식욕부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매실과 황색설탕을 1:1로 담가 발생한 액을 희석하여 미지근한 물에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새 각시도 모를 심는

소서(小暑)

24절기 중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든다.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는 7월 5일 무렵이며, 태양이 황경 105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소서는 '작은 더위'라 불리며,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장마가 시작되는 소서

소서에는 장마철이 시작되어 오랫동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논둑이 무너지지 않게 손봐야 한다. 모낸 모들은 뿌리를 내리는 이 시기에는 논매기를 하여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이때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했다.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고, 밀도 익어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 서리하기에도 좋은 때이다. 중국에서는 소서 무렵의 15일을 3후(三候)로 나누었는데,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소서는 6월의 절기로 초후(初候)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후(次候)에는 귀뚜라미가 벽에서 살며, 말후(末候)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는 옛 속담은 소서 전에 보통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다. 또 이때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소서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의 모내기는 보통 '하지 전 3일, 하지 후 3일'이라고 하는데, 대략 소서 때가 모를 심는 적기이다. 두레를 행하던 당시에는 어느 논이나 보리를 심기 때문에 모를 내는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늦었다. 하지 전에 삶아서 대개 소서 때까지 심었다. 김매기는 모를 매고서 약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작하였다. 절기상으로 초벌은 하지와 소서를 지나서 하게 된다.

이 무렵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여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며, 밀과 보리도 이때부터 먹게 된다. 대체로 음력 6월은 농사철치고는 한가한 편으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 🍷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남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산은 자기만의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가장 높은 산, 바위가 멋있는 산, 멋들어진 성벽이 남아있는 산성, 꽃, 갈대, 단풍이 예쁜 산, 설경이 멋있는 산 등 그중에서도 꼭 가봐야 할 산은 당연히 경주에 있는 '남산'이라 생각한다.



이인성
대전지방기상청



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전설을 품다

신라 천 년의 역사를 당당히 지켜온 남산은 높이 494m의 고위봉과 468m의 금오봉 두 개의 봉우리가 아담하게 솟아 있다. 이 두 봉우리와 40여 개의 계곡을 합하여 '경주 남산'이라 부른다. 또한, 경주 남쪽에 위치하고 80여 구의 석불과 60여 기의 석탑, 100여 개소의 절터가 남아 있어 '노천박물관'이라고도 한다. 남산은 수많은 전설과 함께 역사의 흔이 서려 있는 산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순례하며 역사의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산이다.

초보자들도 무리 없는 산행코스

남산의 산행코스는 경사가 완만하여 초보자들도 오르기에 무리가 없고 중간중간 유적지를 보며 오르는 재미도 있는 곳이다. 초입에서는 삼불상의 크기에서 중압감을 느끼고 자애롭게 웃음 짓는 열굴과 두 뺨에서 인간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다. 푸른 잔디의 삼릉은 제주 오름 같은 크기이며, 이른 아침에 안갯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소나무 숲은 신비감마저 든다.

삼릉계곡 '선각육존불'은 선각으로 여섯 분의 부처님상이 두 개의 바위 면에 새겨져 있으며,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상선암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왔다면 산행의 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금오산 정상에는 정상석이 있으며 특이하게도 카메라를 놓고 찍을 수 있는 삼각대가 있어 산 정상의 경치를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다.

남산 바위에 올라 신라의 화랑이 되다

남산 바위에 올라 넓은 경주를 바라보면 마치 신라의 화랑이 된 기분이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느 작전으로 적을 섬멸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전망대가 많기 때문이다. 곳곳에는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있어 전쟁과 평화 그 어느 때라도 국민을 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후로 내리막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고도 불리는 용장사곡삼층석탑이 있다. 석탑의 하층기단을 생략하고 각부의 조화와 아름답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산하를 보면 참으로 감탄스럽다. 높은 산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무겁고 투박한 돌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탑이 천 년의 태풍을 견디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들의 미소

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보기 위해서는 수직암벽의 좁은 모퉁이를 돌아가야 한다. 선조들은 왜 이런 절벽 위에다가 보살상을 새기는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했을까? 높은 절벽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주길 바랐던 것일까.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동해 일출을 본다면 모든 산하가 평화로울 것만 같다. 힘들고 지친 다리도 한숨 돌릴 겸 한참 동안 앉아서 부처님의 고운 미소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잔잔하고 은은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남산에 있는 부처는 "바위에 부처를 새기는 것이 아닌 바위 속의 부처님을 끄집어내어 바위에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이 이 표현에 제일 알맞은 불상이다. 네모진 기둥 모양의 돌의 네면 각각 불상이 조각되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의 불상은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할 따름이었다. 360도 돌면서 감상할 수 있으며 보는 각도마다 배경과 부처의 조각이 다르게 보여 '어떻게 이러한 구상을 했을까?'하는 감동의 물결이 가슴속으로 밀려들

어 온다. 고위산을 거쳐 용장계곡에 도착하여 시원한 계곡 물에서 여름산행의 땀을 식히면 이곳이 바로 극락이고 무릉도원이 된다.

남산의 특별한 다섯 가지

남산은 다른 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산행 후 다리 보다는 조상의 얼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머리가 더 무겁다는 것,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구석에서 턱 하니 나타난 꾸밈없는 부처의 모습, 세 번째는 짧은 산행 거리에 비하여 가장 긴 산행시간을 기록한 것이다. 네 번째는 지도 한 장으로 그 많은 보물을 찾아가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유적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찍기 위한 여유분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산은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비탈과 험하고 변화무쌍한 기암괴석 속에 노송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산 전체가 수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임을 증명한 최고의 산이라 가히 칭할 만하다.

천년고도의 숨결을 느끼면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산행을 한다면, 마음속 따스함은 천 년을 갈 것이고 만면에 스민 맑은 미소 또한 천 년을 갈 것 같다.☺



6 June 주요 기상정보 및 이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의 맑은 날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	2	3	4
5 5만중 세계 환경의 날 포항시 지진 발생 • 남구 동쪽 20km 해역 규모 2.2 지진 발생	6 6현충일	7 7제주도 지진 발생 • 제주 고산 남쪽 2.7km 해역 진도 2.3 발생	8 8전국 흐리고, 소나기	9 9단오	10 10 6.10 민주항쟁기념일	11
12	13 13 불볕더위, 서울 31°C 서남서쪽 82km 해역 규모 2.7 지진 발생 • 서남서쪽 82km 해역 규모 2.7 지진 발생	14	15 15 중부지방 중심으로 천둥·돌풍 동반 많은 비 내려	16 16	17	18 18 제주도, 남부지방 장마 시작
19	20	21 21 하위 제주도 폭우, 장마 북상	22 22 중부지방 장마 시작	23	24	25 25 6.25 한국 전쟁
26	27	28	29	30		

기온: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중부지방 중심 고온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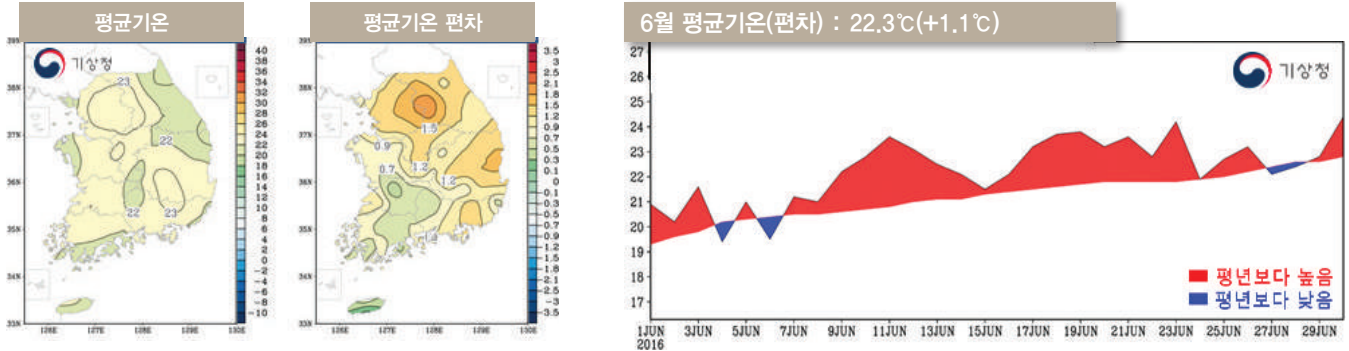
장마: 평년보다 이른 장마 시작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1°C 높아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
※ 1973년¹⁾ 이래 전국 평균기온 최고 1위: 2013년(평균기온 22.6°C, 편차 +1.4°C)
1)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전국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45개 지점값을 사용함
-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면서 구름 낀 날이 많아 평균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 1973년 이래 최저기온 최고 1위: 2013년(최저기온 18.6°C, 편차 +1.9°C)
- 남부지방은 강수 및 구름 낀 날이 잦았던 반면, 중부지방은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균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8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려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었으며, 22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22일에 장마가 시작되어 평년보다 빨랐음
※ 평년 장마시작일: 제주도 6월 19~20일, 남부지방 6월 23일, 중부지방 6월 24~25일
※ 최종 장마시종일은 사후분석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의 분석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18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었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여 22~24일에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후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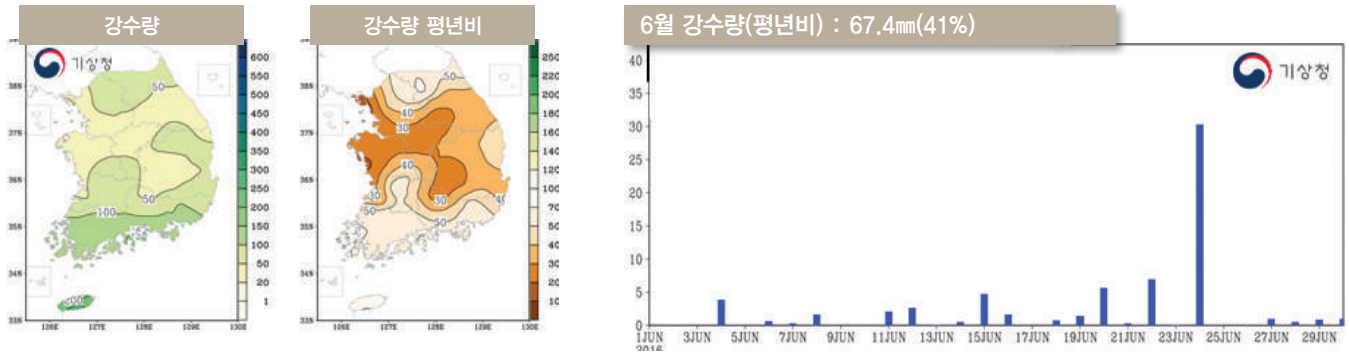


고온 건조했던 6월!

전국 45개 지점의 6월 평균기온과 편차(°C)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전국 45개 지점의 6월 강수량(mm)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및 강수량(mm) 일변화



1973년 이래 전국 평균의 6월 순위 현황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C)	2013, 22.6	2005, 22.4	2016, 22.3	2010, 22.3	2012, 22.1
평균최저기온(최고)(°C)	2013, 18.6	2016, 18.1	2012, 18.0	2005, 18.0	2014, 17.9
강수량(최소)(mm)	1982, 30.5	1992, 41.8	2010, 61.4	2016, 67.4	2002, 69.2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4.11.))

6월 일극값 경신 현황

최저기온(최고)(°C)	30일	백령도 20.5(2위), 춘천 23.0(3위), 보령 23.0(3위), 강화 21.6(3위), 동두천 21.5(3위), 파주 21.3(4위), 원주 23.1(4위), 양평 22.8(4위), 홍천 22.3(4위), 철원 21.7(5위)
--------------	-----	--

엘니뇨 약화시기의 6월 강수량 경향성 분석

- 엘니뇨가 겨울철에 최고조로 발달하고 다음 해 봄철~여름철 동안 약화되었던 총 7 사례(1983년, 1988년, 1995년, 1998년, 2005년, 2007년, 2010년)를 분석한 결과,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던 1998년 6월을 제외하면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성이 우세하였음
- 엘니뇨가 약화되는 6월에 엘니뇨에 의한 대기 반응이 이어져 필리핀 해 부근에서의 대류활동 억제로 인해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여 동서로 발달하면서 주 강수밴드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여 건조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에어로졸 과학자문그룹 연례회의 개최(6.1)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에어로졸 과학자문그룹 연례회의'를 세계기상기구,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어로졸 분야 최신 기술과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기상청장 국립현충원 방문 참배(6.7)

고윤화 기상청장과 간부들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자 현충탑에서 분향, 묵념했다. 고 청장 등은 기상청의 정책목표인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추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기상청-농림축산식품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6.9)

기상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농산물 수급관리에 기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2016년 상반기 전국 기상관서장 회의 개최 (6.10)

기상청은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과 능동적 대응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전국 기상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래 기상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영향예보 정착을 위해 논의했다.

Photo News



2016년 기상청 9급 신규자 조직 적응능력 향상 과정 입교식(6.13)

기상청은 2016년 기상청 9급 공채 합격자 35명을 대상으로 9급 신규자 조직 적응능력 향상 교육 시행을 위한 입교식을 개최했다. 6주에 걸쳐 예비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기상청 비전 공유 및 조직문화 이해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위촉식 개최(6.23)

기상청은 지역기후변화 과학정보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하여 2016년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올해에는 총 10팀(29명)이 5기 홍보단으로 위촉되었으며, 8월까지 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기상청,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6.19~22)

기상청은 기상·기후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기 위해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3차원 입체영상인 '지구온'과 '날씨방송 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제11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 개최(6.29)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2006년부터 기상정보의 활용 확대와 기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기상산업대상 대상(국무총리상)은 기상정보 활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FNF(주)'로 선정됐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7월 25일까지 전자우편(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Q&A



날씨에 따라 기분이 변하는 이유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쉽게 피로하고 온몸이 쭈시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맑은 날씨엔 피로도 금세 풀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볍다. 이렇게 날씨는 사람들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흐린 날씨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원인을 어느 학자는 공기 중의 '이온'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흐리고 비가 오는 저기압에서는 산소가 포함된 음이온보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양이온이 더 늘어나는데, 양이온에서 방출되는 '세로토닌(serotonin)'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며, 심지어는 심장 발작과 편두통, 류머티즘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할 때 쉽게 피로를 느끼며 짜증스럽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바다 위에 떠 있는 기상청'이라 불리는 기상관측선의 이름은?
① 관측1호 ② 바다청1호 ③ 기상1호 ④ 날씨관측1호

1. ④ 태양의 후예
2. ③ 65℃

- 이경화(청주) 나정애(광명)
조향원(의정부) 박상국(인천)
박그린(서울)

2. 춘천의 '꿇구멍다리'라고 불리는 다리로, 비 내릴 때는 잠수교가 되고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꿇구멍다리의 정식 명칭은?
① 세월교 ② 춘천교 ③ 소양교 ④ 청평교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복직	6. 1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	변재영
퇴직	6. 3	관측기반국	지진화산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관리관)	윤원태
복귀	6.15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기상사무관	기미옥
승진	6.20	예보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신도식
전보	6.20	수도권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양진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담당관)	장동연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기술서기관(과장)	유상진
복직	6.20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기후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변영화
정년 퇴직	6.30	기상청(공로연수 파견 중)		부이사관	권태순
				서기관	조기현
				기술서기관	이경현
				기상사무관	유장근
				기상사무관	최병성



작은 '관심'과 '배려'는 삶의 희망이 됩니다

고민이 있나요?
전화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 상담은
국번없이 1388 또는 117
1577-0119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등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전화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2016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되면 뭐 할래?

www.create-unikorea.kr

참가 접수

기간 2016년 6월 16일(목) ~ 7월 15일(금) 18: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create-unikorea@naver.com)로 접수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기획안 첨부 필수(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참가 대상

2030 청년층 누구나 (97년생부터 77년생까지)

공모 주제

통일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등 (사업분야 자유)

본선 일정

본선 진출 20팀 선정 (창작지원금 50만원 지원) ▶ 본선팀 오리엔테이션 ▶ 중간 점검 ▶ 최종 심사 및 전시회

시상 내역

대상	1팀(명)	통일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팀(명)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3팀(명)	창업진흥원장상/중기중앙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1팀(명)	UN-HABITAT 청년 특별상 및 상금 100만원

문의 create-unikorea@naver.com

관광 개마고원 레저플라자

산과 평지가 어우러진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환경을 활용한 초대형 레저 플라자 건립

요식업 육류관 프랜차이즈

북한 대표 음식점인 육류관을 통일한국에
 맞게 프랜차이즈화

건축 통일한국 랜드마크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런던아이처럼
 통일한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

교통 북한 철도망 구축 계획

산업 목적으로 건설된 북한의 철도망이
 대륙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재구축

IT 백두대간 정보 네비게이션 앱

백두대간 산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포츠 북한 프로야구 구단 브랜딩

철원 백마스 등 북한 지역에 연고를 둔
 야구 구단 브랜딩